

나주시 내년 예산 시민 목소리 대거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개최
모바일 앱 활용 의견 수렴
25일까지 사업 선호도 투표

구회 김광원 회장을 초청해 '참여예산 현장모니터링 사례분석 및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분과별(총무복지, 미래전략산업, 안전도시건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관계 부서 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시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나주시민참여 모바일 앱에서 25일까지 '사업 선호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별 사업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위원은 "지난해와 다르게 관계 부서 설명으로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제안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28일 올해 첫번째 '동네방네 페스티벌'

나주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
45개 공연·전시·체험팀 참가

다. 올해는 '동네방네 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해 동네별로 찾아가 총 4회 진행된다. 대호지구 수변공원에서 열린 1회차는 노안면, 금남동, 성북동, 송월동을 위주로 참가팀을 마감했다. 또 2회차는 10월 26일 남평 드들강변 둔치공원에서 남평읍, 빗가람동, 봉황면, 다도면, 금천면, 산포면을 위주로 10월 2일까지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3회차는 11월 16일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왕곡면, 공산면, 동강면, 반남면, 세지면 위주로 참가팀을 구성하고, 마지막 회차는 12월 7일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지역 구분 없이 개최된다. 센터 관계자는 "동네방네페스티벌을 통



지난해 열린 오감장터.

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자생력을 증진 문화인력을 발굴·양성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제안 공모를 통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향교 상음레도 활용 '유생아, 상음레로 놀자!' 개최

전래놀이문화연구회 '술래' 21일

실시한 '2019년 방방곡곡 전통놀이 공모사업'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표로 '술래'가 선정되어 실시된다. 상음레(相音謨)란 '주자(朱子)의 '집전집해'와 '양씨도문'을 시원(始原)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율곡선생이 해주 문헌서원에서 최초로 행한 이후, 향교나 서원, 서당 등 교육기관에서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어져 내려오는 강학(講學)의 법례(法禮)이며, 나주향교 명륜당 앞에 상음레도가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상음레 재현과 상음레도를 활용한 전래놀이와 선비놀이, 두 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 10시~11시까지

나주향교 유림과 학생들의 상음레 재현, 11시~12시까지 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유생아, 상음레로 놀자!'는 전국 최대 규모와 역사적 위상을 자랑하는 나주향교의 상음레도를 활용하여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역세과 새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또 나주시,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나주시도시재생협의회, 금남동주민자치위원회, 골목 청년 등이 후원에 나서며 지역 문화 활성화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생아, 상음레로 놀자!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21일 나주향교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민오케스트라가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나주문예회관에서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 기원을 위한 협연을 갖는다. 지난 6월 '6월의 왈츠' 공연 장면. <나주시 제공>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 기원 나주시민오케스트라 두번째 공연 '60분'

오늘 나주문예회관

나주시민오케스트라가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 기원을 위한 두 번째 공연을 펼친다. 나주시는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나주문예회관에서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를 기원하는 제2회 공연 '60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오케스트라는 지난 6월 21일 첫 공연(6월의 왈츠)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들려주는 화합의 선율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2회 공연은 시민오케스트라, 시민 앙상블(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시립합창단, 시민성악교실합창단 등 130여명의 협연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아름답고 웅장한 조화를 펼친다. 공연 곡은 'The Last Waltz' (올드보이ost), '모차르트심포니 No.30 2악장, 1악장', '축배의 노래 'fly to the sky'

(경성스캔들 OST) '그리운 금강산' 등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장르 음악을 60분(분)간 들려줄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오케스트라는 누구도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문화행복도시 나주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민오케스트라 프로젝트는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19년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오케스트라는 '잘하지 말고 즐겁게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도시와 원도심 지역 곳곳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원들은 매주 1회 연습을 통해 화합의 하모니를 완성해가며, 지역 내 문화소통의 감동을 주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갈등 조정가 입문교육'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역 공동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조정 능력 향상을 위해 '갈등 조정가 입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센터 대회의실에서 김홍석(조울 컬렉티브 대표) 강사를 초청해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청훈련'과 '갈등조정훈련'을 주제로 참여형 숙의방식으로, 조정가

를 위한 듣기기술, 갈등 분석 등 갈등 조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마련됐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센터 블로그에 게시된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센터 방문이나 이메일로 제출(선착순 30명)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공동체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공동체 유지의 중요한 문제"라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